“하고 싶은 음악만 지켜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데뷔 10년, 민중가수 연영석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사진제공 연영석 홈페이지

1967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그의 어릴 적 꿈은 화가였다. 수차례의 도전 끝에 1989년 꿈에 그리던 홍익대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미술보다는 ‘아스팔트 위의 학생’의 길을 택했다. 2008년 현재, 그는 무대가 아닌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5만 원 짜리 옥탑방에 살면서도 그의 꿈은 여전히 삶을 노래하는 가수다. 조각도 출신이면서 그 흔한 조각도 한 벌 갖고 있지 않은 화가가 바로 그다.

‘솔아솔아 푸른솔아’ 듣고 난 뒤 인생행로 ‘역전’

연영석(42)은 가수다. 무대에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회가 열리는 곳에는 항상 그가 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느 가수와는 다르다. 홍대 인근에 있는 값싼 옥탑방이 거처다. 살림은 빈한하다. 그래서일까. 그의 인터뷰는 그의 친구 작업실에서 이뤄졌다. 뒤늦게 알고 보니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차마 모시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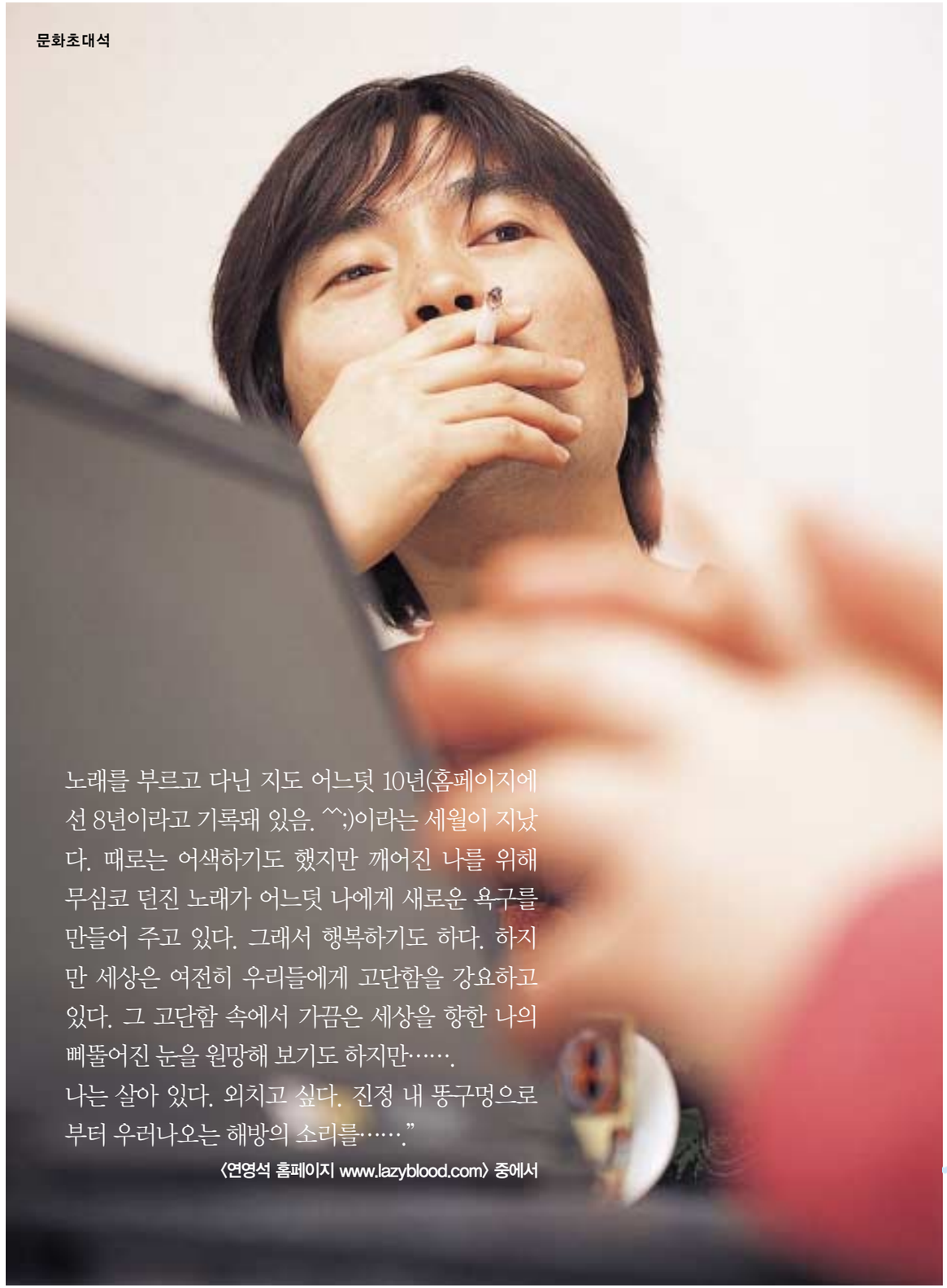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초창기에는 1년에 번 돈이 200만원이 채 안됐는데 지금은 700만~800만원 수준은 됩니다. 월세 내고 교통비 쓰고 밥 사먹고 담배 피고……. 제가 그냥저냥 살아가는 데 문제없어요.” 그의 수입은 외부 행사 공연비, 음반 판매와 후원비와 아르바이트로 이뤄진다. 현재 그는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버거워 새 집을 구하고 있다.

화가에서 가수로,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건 대동제 때 후배들이 ROTC(학생군사교육단)한테 맞고 온 것을 본 뒤였다. 주체 할 수 없는 의협심에 패싸움을 벌였다. 이때 구치소에서 우연히 〈솔아솔아 푸른솔아〉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울컥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1980년대 끝물 학번인데, 그냥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고 맘먹게 되더라고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회도 만들고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상의 중심이 ‘노동자’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천지인’ 콘서트에 윤도현 대신 무대 올라 데뷔

1992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양심상 남들처럼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 그는 노동미술 운동에 뜻을 품은 미술인들과 진보 미술동인 ‘현실감각’을 창립한다.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전시활동과 무대미술 제작 등 대중적인 미술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노동문화운동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함께 ‘문화예술생산자연합’을 만들어 활동범위를 미술뿐 아니라 음악, 글, 영상까지 넓혔다. 흔히 말해, 데모하는 것 좋아하고 사회에 나와서 나만 잘 먹고 잘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한데 모인 조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멤버들이 취업과 결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산하고 만다.

몇 년 뒤 ‘문화예술생산자연합’은 없어졌지만 그가 가수가 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회원



단체인 록그룹 '메이데이'에 가사를 써주기 시작하면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문화예술생산자연합'이 해산되고 그 충격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던 중 최초의 자작곡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8곡 정도를 더 만들어 아예 제가 가수로 나선 겁니다."

가수 데뷔는 1998년. 이때 그는 남한 최초의 1인 조직 '문화노동자모임'과 문화노동자의 독립 레이블인 '맘대로 레이블'을 결성했다. 구조조정의 반 민중성과 대중의 경제적 빈곤을 노래한 1집 '돼지다이어트'를 발매했다. 그의 나이 서른두 살 때였다.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나이였다. 운 좋게 '천지인'의 콘서트 공연 중 게스트인 윤도현의 펑크로 얼떨결에 무대에 서고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된다. 그리고 10년째 가수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문화가 아닌 '노동자'의 삶과 조건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미술 · 음악에 이어 연극까지 관심 분야가 넓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웠다. 연극에 대한 관심은 1999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99 노래판 굿 꽃다지'에서 퇴출당한 가수 '마이콜' 역에 첫 출연한 것이 계기였다. 이어 '극단 한강'의 객원배우로 참여, 2000년 전태일 열사 분신 30주년 기념 '연극 전태일'에도 출연했다. "어눌한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 거죠.(웃음)"

그의 일주일은 여전히 바쁘다. 평균 4~5일 집회에 나가고 또 노래를 부른다. 매달 1번 홍대 앞 '빵'이라는 클럽 무대에 선다. 삼성 특검 관련 집회,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시위현장 등 그의 무대는 매번 바뀐다. 여기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명동성당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의 삶은 빈한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열심이다.

"음악을 하는 박준 선배가 예전부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장애인 · 이주노동자 · 가정파탄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들풀장학회를 만들게 됐어요. 한 달에 몇 명을 추려서 20만원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음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지금껏 그에겐 가수보다는 문화활동가라는 꼬리표가 더 자주 따라붙었다. 가수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 "때로는 아쉽거나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제 음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섭섭한 것은 이른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내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던) 깊이 있게 바라봐지지 못하는 게 섭섭합니다."

음악을 한 지 10년. 이제 그도 집회 때 불러지는 가수보다 음악으로, 음악 하는 사람들로 평가받는 가수로 인정받고 싶은 듯했다. 다들 알고 계실까? 그는 지난 2006년 제 3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가수로, 그의 노래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만 조각 작품으로 만날 생각은 없을까. 요즘은 종종 다시 조각도를 갖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한다. 음악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지만, 지금은 그에게 '음악'이 전부다. 다만 이제는 '투쟁가'가 아닌 서정적인 음악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어깨와 손목이 아파요. 파장을 일으키고 싶어서 냇가에 돌을 던지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돌을 막 던지고 싶은데 이제는 마음의 어깨가 아파요. 힘 있게 안 던지고 다르게 던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

문화초대석

1998년 전시했던 연영석 씨의 조각 작품 〈하늘이시여 날 버리시나이까〉

민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 2~3갑의 담배를 핀다.

그의 음반 발매 주기는 대체로 3~4년이다. 1집 〈돼지다이어트〉가 1998년에 나왔고, 2집 〈공장〉은 2001년에 나왔다. 3집 〈숨〉이 2005년 나왔으니, 시기상으로 보면 4집 음반이 나올 때쯤이다. “지금 음반 작업을 하고 있긴 해요. 새 음반에 실릴 곡 중에 ‘허우적거리다’란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걸어가면서 자신의 꿈과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거울’이란 곡도 있어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데 나도 상처가 있으니 서로 보듬어주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철 창문을 볼 때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난 뒤 떠오른 생각을 담았습니다.”

지금 그의 관심사는 음반 내는 것. 아니, 가능하면 당분간 다른 계획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악만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현장에서의 공연이 참 좋습니다.”

그의 4집은, 독립영화 〈필승 연영석 ver2.0〉을 만들고 있는 태준식 감독이 한 언론에 밝힌 인터뷰처럼 기존 노동가요와는 다른 음반이 될 것 같다. “영석이 형의 음악은 단결, 투쟁, 연대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찰을 형식적 완결성으로 담아냅니다.”(태준식)

올해로 데뷔 10년. 이를 기념해 별도로 기획하는 행사나 콘서트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콘서트는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글 · **김미영** 기자 한겨레신문 kimmy@hani.co.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한 책들

시대의 불꽃 시리즈 — 각 권 6,500원

전태일	김기선	김경숙	박영희	박영진	이인휘	김한림	정지아
최종길	김기선	성완희	유영갑	권종대	안상학	채광석	박선욱
김진수	김기선	김주열	전성태	박종철	김윤영	이한열	서성란
김상진	김남일	윤상원	윤동수	정법영, 김두황	양문규, 정혜주	오 윤	김문주
						계훈제	최용탁

역사다시읽기 시리즈 — 각 권 3,000원

4·19혁명	김정남	부마민주항쟁	김하기	유신헌법반대운동	정혜주
6월민주항쟁	유시춘	한일회담 반대운동	김기선		
5·18민중항쟁	김진경	4·3제주	허영선		

연구소 발간물

단행본		유신과 반유신	안병욱 외 / 28,000원
A Single Spark	조영래 / 전순옥 역 / 18,000원(USD 18)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38,000원
Memories of ay	유시민 외 / 박혜진 역 / 20,000원(USD 20)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 12,000원
Birth f Resistance	박민나 / Sarah Eunkyung Chee 역 / 18,000원(USD 18)	잿빛시대 보랏빛 고운 꿈	김설이,이경은 / 10,000원
		시대를 지킨 양심	짐 스텐츨 엮음 / 최명희 역 / 22,000원
More Than Withnesses	Edited by Jim Stentzel / 28,000원(USD 25)	동아시아와 한국-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조희연 · 박은홍 편 / 13,000원
濟州四 · 三	허영선 / 오이카와히로에 · 오하라츠나키 공역 / 6,000원(¥ 600))		
		기억과 전망	각 권 / 10,000원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 외 / 12,000원	계간지 기억과 전망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전재호 외 / 10,000원	창간호 (2002년 겨울호)~14호 (2006년 봄호)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송병헌 외 / 10,000원	반연간지 기억과 전망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윤도현 외 / 10,000원	15호 (2006년 가을호)~17호 (2007년 가을호)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차성환 외 / 25,000원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전진성 외 / 18,000원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김정남 / 8,700원
국가와 기억	제프리 K.올릭 엮음 /최호근 · 민유기 · 윤영휘 옮김 / 23,000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이야기	글 이치석·그림 서민호 / 9,000원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박은홍 외 지음 / 15,000원
민주발전지수 2004-2005 : 평가와 전망	윤상철 외 / 25,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02-3709-7500))